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8 | 제150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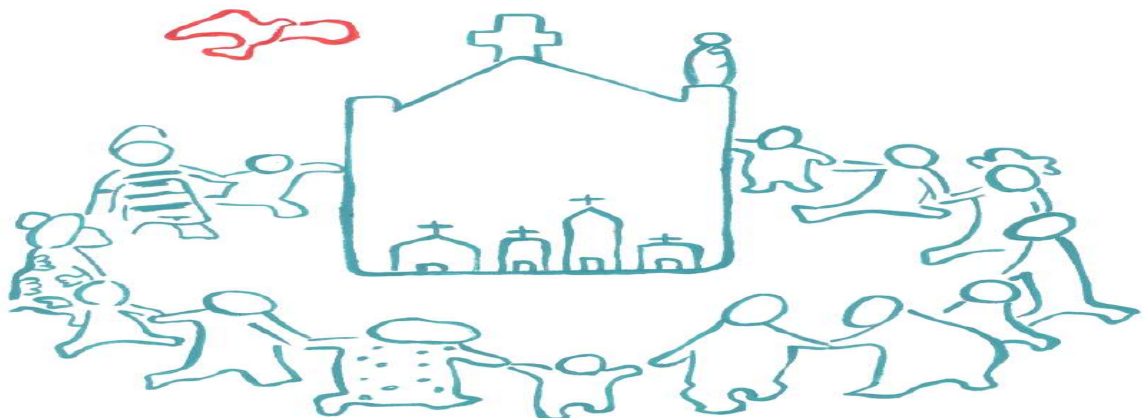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39-56)



성모 승천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 지상의 우리들에게 희망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온유한 분홍빛 우리 옷으로, 사랑 넘치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성모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9번 "성모 승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주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리라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9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올로 갔다. 40 그리고 조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 질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7-48)

내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련과 고통을 겪고 계심을 묵상해 봅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도 없이 성모송을 바치며 '마리아님, 당신은 복되십니다.' 고 외우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왜 행복한지 정작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믿고 외우며 성모송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모님이 행복한 진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셨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써 행복해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우리의 욕심과 희망사항으로 채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희망사항이 있는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다 둬시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대해 더 잘 아십니다.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보다 더 행복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연중 제21주일 (8월 22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 6,60 L -69)



영은 생명을 준다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주님은 돌아서 가려는 우리에게 오히려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요한 6,63)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봅니다. 그림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오는 영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오심을 나타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60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6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62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65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66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67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68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69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 6,66)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듣고 해석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봅시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 6,67.68)

혹 주님의 길을 떠나려는 유혹에 빠지거나 실제로 주님의 길을 떠난 적은 없었나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고 투덜거리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이웃을 겉으로만 보고 대하고 깊고 진실한 내면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영(spirit)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받아들여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던 세상이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서로 믿고 친밀해지는 만큼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친밀한 만큼 그만큼 서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말처럼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내어주는 사랑을 배우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나가는 명서동본당 명곡구역 구역장 김영순(마리아 막달레나)

저희 명서동본당은 올해 본당 설정 30주년이 되었습니다. 배진구(베드로) 주임신부님께서서는 30주년을 맞이하여 묵주기도 30만 단 봉헌을 제안하셨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자가 참여하는 전시회, 후보성인(성가정)상 설치, 기념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모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노력하며 매주 신부님의 묵상 메시지와 주보를 공유하고, 주일 미사, 평일 미사까지도 밴드 라이브로 중계를 하며 거리두기로 인해 미사를 함께하지 못한 신자들까지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곡구역은 3개의 낮반, 2개의 밤반(남성모임)으로 총 5개의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달 소공동체 모임을 하였고, 일 년에 두 번은 전체 모임을 가지며 끈끈한 친교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맞는 이웃끼리는 주일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라인 댄스를 하며 좋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또한 수시로 모임을 가지면서 전례봉사, 성경쓰기, 사회봉사, 본당 화단가꾸기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은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명 함께 모일 수도 없어서 SNS(카카오톡)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매일 좋은 글귀를 올려주시는 분,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분, 기도를 하여 주시는 분, 경조사 소식을 알려 주시는 분 등 다양하게 소통을 하며 가끔 반장님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반원끼리도 방역수칙 규정을 준수하여 소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올 3월에는 예비신자 3명이 교리 반에 입교하여 저희 구역에서 함께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어려워졌지만 그로 인해 소홀히 했던 이웃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매일 볼 수 있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잘 이겨 내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1.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남

3)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나의 정신과 감정 속에 깊이 머물러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이 싹틀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방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 (마태 12,34)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질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먼저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 150항)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질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히브 4,12)

2. 말씀 나누기를 위한 준비

1) 성경 공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2티모 3,15-17)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이사야서 주해 PL24,17) 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성직자성의 「교리교육 총지침」에 따르면, 신앙 교육은 무엇보다 "성경과 복음서들의 본문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성경과 복음서들의 사상과 정신과 안목으로써 주입되고 고취되어야 한다." (교리교육 총지침, 127항)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소공동체 안에서 성경공부는 "언제나 신앙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에 다가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둘이나 셋이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도 살아 계시듯이 (마태 18,20) 그 말씀들이 살아 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는" (주님의 말씀, 74항) 방법을 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가 소공동체 봉사자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단계별 성경 교재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소공동체 교육 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